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의 변신 모티브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Metamorphosis-Motive in Ovidius' *Metamorphosen* and Grimm brothers' *Kinder- und Hausmärchen*

이민수¹⁾

Min-Su Lee¹

요 약

본 연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브'를 비교 연구한다. 두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신 모티브'가 두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변신 모티브'의 개념이 규명하고, 3장에서는 오비디우스와 그림 형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 토대이고 나아가 신화와 동화 속의 '변신 모티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4장에서는 두 작품의 연결고리인 '변신'을 살펴보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의 '변신 모티브'를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변신 이야기』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속의 '변신 모티브'의 차이점을 밝힌다. 두 작품은 상상력의 화수분이자 예술의 보물창고로 평가받고 있다. 두 작품은 시공을 초월하여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 위대함의 근거에는 '변신 모티브'가 있다.

핵심어: 변신, 신화, 동화,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그림 형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ly on metamorphosis motif represented in both *Metamorphosen* by Ovidius and *Kinder- und Hausmärchen* by Grimm Broth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works I try to examine how metamorphosis motifs are embodied in Greek mythology and German fairy tales.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deals mainly with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metamorphosis motifs in mythology and fairy tales. In the third chapter I explain the authors Ovidius and Grimm Brothers and their works. In this

1) Department European Language and Cultures, Sogang Univ.,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e-mail: eurobuk@nate.com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747)

Received(November 11, 2017), Review (December 15.2017), Accepted(December 31.2017)

chapter I concentrate on exploring the meaning of metamorphosis motif. In fourth chapter I attempt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metamorphosis as a connecting link between two works. Here I categorize metamorphosis motifs represented in Greek mythology and German fairy tales. Through it I show the similar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metamorphoses represented in Metamorphosen and Kinder- und Hausmärchen. Two works are evaluated as the imagination source and the treasure house of arts.

Keyword: metamorphosis, mythos, fairy tales, Ovid, Metamorphosen, Brothers Grimm, Kinder- und Hausmärchen

1. 들어가는 말

현대는 변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모두 변신을 열망하고 있다. 변신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일 수 있다.『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해리포터 시리즈』는 21세기의 밀리언셀러이다. 왜 우리는 많은 문학 장르 중에서 하필 '신화'나 '환타지 소설'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변신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변신 모티브'는 신화 시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변신 모티브'는 문학의 가장 오래된 모티브에 속한다(Pevny 2014: 7).[1] 서사 문학에서 변신은 '원형'의 개념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고 어디에나 편재하는 것을 '원형'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유지된 '원형'에는 그 집단의 가치관과 문화양식이 들어 있다. 그래서 원형으로써 '변신 모티브'는 신화, 전설, 민담, 동화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캐나다 출신의 문학비평가 노드롭 프라이(Northrop Frye, 1912-1991)는 문학은 인류가 공유한 원형적인 신화의 끊임없는 재창조이며 반복이라고 말한다. 서사 문학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통 분모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할 때 문학은 신화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층위로 발전한 것이다(정재서 2008:328 참고).[2] 가브리엘라 브루너 웅리히트(Gabriella Brunner Ungricht)는 자신의 저서『인간-동물-변신(Die Mensch-Tier-Verwandlung)』에서 다른 형태로의 인간의 변신은 논리적, 경험적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신 모티브'는 문학과 예술은 물론 사상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Brunner Ungricht, 1998:13 참고).[3]

신화와 동화는 단어의 유래에서부터 공통점을 가진다. Mythos는 고대 그리스어 'μῦθος'에서 유래한 말로 라틴어로 mytus다. 미토스는 호메로스 때부터 사용된 말로써 '단어,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 Mär(Bericht und Erzählung)'등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신화적인"이란 뜻은 "동화적으

로 믿을 수 없는, 우화적인, 전설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4] 이렇게 볼 때 신화와 동화(Märchen)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두덴(Duden) 사전에 따르면 동화는 "역사적인 사람 혹은 특정한 지역과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 환상적인 문학,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Märchen은 15세기 이후 선호된 단어로 '소식, 소문, 짧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의미의 Märe에 독일어 축소형어미 -chen을 붙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Märe는 "groß, bedeutend, berühmt"라는 형용사에서 유래한 중고지 독일어(1050-1030년)와 고고지 독일어 동사(750-1050년)와 연관이 있다. "공식적으로 알리다. 칭찬하다(verkünden, rühmen)"라는 의미이다(Dudenredaktion 2006:543).[5] 이 상에서 보면 신화와 동화에는 'Mär'라는 접두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이야기' 혹은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화와 동화는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풀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 신화와 동화의 문학적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가 '변신 모티브'라는 점에 주목하여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와 그림 형제(Jacob Grimm, 1785-1863/Wilhelm Grimm, 1786-1859)의『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Kinder- und Hausmärchen)』의 (이하 KHM이라한다) '변신 모티브'를 비교 연구했다.

신화 연구와 동화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연구 업적도 적지 않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있지만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로 '변신 모티브'를 연구한 논문은 김기영의「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의 에필로그(15.871~9)에 나타난 오비디우스 변신의 의미」외에는 없다.

한국에서 '변신 모티브'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설화와 고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변신 모티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임영옥, 2000:5).[6] 1978년 이상일은『변신 설화의 이론과 전개』에서 한국과 독일 민담을 중심으로 '변신 모티브'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변신 모티브' 연구는 독문학보다 국문학과 아동 교육에서 신화와 민담을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독어 독문학에서 이 연구의 상황은 어떨까. 그림형제의 민담 동화 KHM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변신 모티브'만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변신 모티브

인류 서사 문학의 원천인 신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변신 모티브'가 가장 잘 반영된 문학 장르인 동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화와 동화 속의 초시간적인 '변신 모티브'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본고에서의 '변신'은 사물들의 형태적인 변화에만 한정짓기로 한다.

'변신'이란 무엇일까? 이 단어는 영어로는 metamorphosis이고 독일어로는 Metamorphose이다. 그리스어 μεταμόρφωσις에서 유래했으며, '바꾸다'라는 뜻인 μετα(meta)와 '형태'란 뜻의 μορφή(morphe)의 합성어이다.[7] 그렇다면 Metamorphose는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이다.

이상일은 '변신'을 "자이나 타의에 의해서 어떤 원형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상일, 1978:35-36)[8]으로 규정한다. <문화비평용어 사전>에 따르면 변신은 "본체를 떠나 변모된 모습, 변화, 변전, 전환, 변태, 둔갑, 변신이라는 용어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변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 내지 초자연적인 것, 동식물이나 광물로 형태가 바뀌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9] 요약하자면 신화와 동화에서 '변신'이란 몸을 바꾸는 것 즉 형태의 변화 즉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 자이나 타의에 의해 모습을 바꾸는 것,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천상계가 일차원의 세계에서 상호 이동하는 것이다.

고대의 신화나 전설, 설화와 같은 구전 문학에서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한다.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Odin)은 마법에 능통하여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 말썽꾼 로키(Loki)도 변신의 귀재이다. '변신 모티브'는 우리나라 고소설이나 옛날 이야기, 민담에도 자주 사용된다. 김소월의 시 <접동새>는 '변신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본 부인이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나자 후처가 들어온다. 계모는 본처의 딸을 미워하고 구박한다. 그 딸이 시집갈 때가 되어 많은 혼수를 장만했는데 갑자기 죽자 오빠들은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생의 혼수를 마당에서 불태운다. 이때 계모가 아깝다고 태우지 못하게 말린다. 화가 난 오빠들이 계모를 불 속에 집어 던지니 계모는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고 죽은 동생은 접동새가 되었다. 접동새는 까마귀가 무서워 밤만 되면 오빠들을 찾아와 울었다.[10]

동서양을 막론하고 '변신'은 신화와 설화 속에서 중요한 법칙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등에서도 '변신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단군 신화에서 '변신'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한 곰이 동굴에서 썩고

마늘을 먹기 시작한 지 삼칠일(세이레라고도 하며 21일을 말한다.) 되는 날 갑자기 여자의 몸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변신은 웅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천자의 아들인 환웅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웅녀와 결혼하기 위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단군을 낳는다.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에서는 변신을 거듭하는 하백과 해모수의 싸움 장면을 읽을 수 있다. 하백이 잉어, 사슴, 꿩으로 변하면 해모수는 수달, 승냥이, 매가 되어 하백을 잡는다. 신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변신은 중요하게 재현되고 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자. 하늘의 징벌로 유향과 불이 쏟아지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던 롯의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된다.

이렇듯 '변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재하며 장르를 초월한 모티브이다. 그렇다면『변신 이야기』의 구성 원리인 '변신metamorphosis'이란 무엇인가?『변신 이야기』의 서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몸을 얻은 형상들을 노래하라고 내 마음이 나를 재촉하니, 신들이시여 그런 변신들이 그대들에게서 비롯된 만큼 저의 이 계획에 영감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주의 태초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이 노래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천병희 2006:24)."[11] "새로운 몸을 얻은 형상들"이란 표현은 metamorphosis, '외양의 변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외양'이라는 의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신이나 인간, 반신이 동물, 식물, 광물 등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서『변신 이야기』는 특히 신화적인 범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만물, 식물, 동물,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연원을 밝혀준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세계는 인간의 산물인 것이다(Von Albrecht/ Glücklich 2007:5 참고).[12] 예를 들면 월계수는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한 요정 다프네가 변신한 결과이다.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남편을 피해 도망가던 프로크네는 신에게 기도해 나이팅게일로 변하고 동생 필로멜라는 제비로 변신한다. 오비디우스는 이처럼 세상의 처음, 우주의 태초부터 자신이 활동하던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세계 생성의 역사를 담고 있다(김기영 2012: 56-57 참고).[13]

3. 오비디우스와 그림형제

3.1 오비디우스의 생애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o BC 43년 - AD 17년)는 BC 43년 로마에서 동쪽으로 120킬

로 떨어진 술모(Sulmo: 현재 이탈리아의 술모나Sulmona)에서 기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그러하듯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관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로마에서 수사학과 웅변술을 수학했다. 그는 한때 관직 생활을 했으나 결국 시작에 전념하였다.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BC 70년 - BC 19년)나 호라티우스(Flaccus Quintus Horatius, BC 65년 - BC 8년)는 아우구스투스(Augustus:BC - AD 14년, 재위 기간 BC 27년 - AD 14년)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후원을 받은 반면 오비디우스는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예술가들의 후원자인 메살라 코르비우스(Marcus Valerius Messalla Corvinus)에게 발탁되어 그의 문인 클럽에 들어갔으며 그의 후원을 받았다고도 한다.

그는 초기에는 사랑의 비가를 주로 썼고 BC 15세기에 처녀작『Amores(Liebeerfahrung)』를 발표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Ars amatoria(Liebeskunst)』,『Remedia amoris(Liebestherapie)』,『De medicamine faciei(Schoenheitsmittel)』등 일련의 사랑과 미와 관련된 작품을 발표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랑의 비가를 계속 창작하다가 약 AD 1세기경 대표 작품인 『변신 이야기』를 쓰기 하면서 '문학적인 변신'을 한다. AD 8년 오비디우스는 갑자기 아우구스투스 왕에게 추방 명령을 받고 죽을 때까지 북해의 서쪽 해안 토미(Tomi:토미는 지금 도나우 강 어귀의 루마니아 영토 콘스탄차로서 로마 제국의 아득한 동쪽 변방에 위치한 곳이었다.)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오비디우스가 언제『변신 이야기』를 집필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BC 1년 - AD 8년 사이라고 추정한다.

오비디우스는 자신의 추방의 원인을 『Trista(Lieder der Trauer)』에서 '시와 잘못(carmen et error)'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시는 『Ars amatoria』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했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 한편 그의 추방의 원인을『변신 이야기』에서 보는 작가들도 있다. 그 이유로 변신이야기에서 다루어진 부정적인 인물 중 몇몇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Holzberg 2016:16 참고)[14]. 최혜영은 그의 논문「오비디우스의 추방 원인과 언론 자유의 한계」에서『변신 이야기』의 '맺는 말'에 기술된 오비디우스의 작가로서의 오만함이 추방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논지를 편다(최혜영 2001:256-257 참고).[15]

오비디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보내는 비가 형식의 서간『Tristia』에서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있으니 용서해주기를 청하지만[14] 로마로의 귀환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유배지에서 약 AD 17년경 죽음을 맞는다.

3.2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의 구성

서양 문학의 고전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는 신화를 집대성한 단순한 신화 모음집 이상이다. 오비디우스의 화려한 표현과 풍부한 상상력은 그의 작품을 시공을 초월한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중세 시대에 그리스와 로마 작가 중 가장 많이 읽힌 작가는 오비디우스였다. 중세학자 트라우베(Ludwig Traube 1861-1907)는 오비디우스의 영향이 가장 강렬했던 서양의 12-13세기를 '오비디우스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였다(천병희 2006:743).[11] 우리나라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토마스 불핀치(Thomas Bulfinch, 1796-1867)의『그리스 로마 신화』도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를 풀어 쓴 것이다.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는 베르길리우스의『아이네이아스(Aeneis)』와 더불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주요 저작이다.

안재원에 따르면 "로마 문학이 그리스 문학에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에는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와 오비디우스와 같은 작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로마의 문인들은 그리스 시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대부분이 학교에서 문법 교육과 문학 훈련을 받았던 학자, 시인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비디우스였다(안재원 2010:116)."[16] 이렇듯 오비디우스는 뛰어난 수사력으로 베르길리우스(Vergilius, BC70-19), 호라티우스(Horatus, BC 65-8) 와 더불어 문학의 황금기인 아우구스투스 시대(BC31 -AD 14)의 3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오비디우스의『변신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의 작품 중 가장 분량이 많다. 그는『변신 이야기』 전까지는 헥사메터와 펜타메터의 비가조 대구로 연애시를 썼지만 이 작품에서는 서사시 운율인 헥사메터(장단단격 운각인 닥틸루스가 여섯 번 반복된 운율)를 사용하고 있다(천병희 2006: 746 참고).[11] 이 작품은 15 권(Buch)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목과 같이 약 250편의 변신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로 얽혀 있기도 하다(Von Albrecht/Gluecklich, 2007:13).[13] 예를 들어 「월계수가 된 다프네」를 보면 모든 강의 신들이 다프네 소식을 듣고 다프네의 아버지 페네오스를 찾아온다. 그러나 이오의 아버지 이나쿠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딸 이오를 잃어버리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프네의 이야기에 이어서「암소로 변한 이오」이야기가 바로 이어진다.

한 이야기가 그 장에서 결말을 맺지 못하고 다음 장에서도 계속되기도 하다. 「암소로 변한 이오」에서 유피테르는 이오를 사랑하지만 유노가 무서워 이오를 암송아지로 변신시킨다. 결국 유노에게 암송아지를 선물하고, 유노는 아르구스에게 암송아지를 지키게 한다. 이어진 이야기 「백개의 눈을 가진 아르구스」에서 유피테르는 메르쿠리우스를 시켜 암송아지를 빼오도록 한다. 메르쿠리우스는 아르구스에게 온갖 이야기를 해주면서 갈대 피리를 불어 100개의 눈이 잠이 들게 한다. 그러나 아르구스의 이야기는 이 장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장인 「쉬링크스」에서 끝이 난다. 이렇듯 각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서로 얽혀있기도 하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각 권마다 7-1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은 700-900 헥사메터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1995행이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주제나 한명의 주인공은 없지만 책의 제목 '변신(Metamorphoses)'처럼 천지 창조와 홍수, 신들이 이야기, 영웅 이야기, 트로이와 로마 건국 신화, 카이사르가 죽은 후 하루에 올라 별이 되기까지의 온갖 변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Harenberg *Literaturlexikon*, 2003:696f).[17]

이 책의 구성은 제 1부 (1권-2권), 2부 (2권- 6권 400행), 3부(6권 401행-11권), 4부(12권-15권)로 나눌 수 있다. 제 1부(제 1권, 제 2권)에서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와 신과 유한한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제 2부(제 3권부터 제6권 410행까지)에서는 인간이 중심에 놓인다.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인간은 종종 아무 죄 없이 신에게 잔인한 징벌을 받기도 한다. 제 3부(6장 411행부터 11장)에서는 인간의 사랑의 비극과 고통이 각인되어 있다. 신들은 인간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고 변신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고통을 구원하는 행위이다. 신들의 보답과 처벌로 이루어진 변신도 나온다. 제 4부에서는 트로이 전쟁부터 아이네이아스의 이탈리아 여행, 로마의 건국과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세계 제국까지 다루고 있다. 아이네이아스, 로물루스, 카이사르처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신격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오비디우스는 15권의 '맺는 말'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자신은 "유피테르의 노여움도, 불도, 칼도, 게걸스런 노년의 이빨"(천병희, 20016: 741)[11]도 없애버리고 불멸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세계는 생성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할 뿐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피타고라스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제 15 권에서 사모스 사람이 등장해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전한다. 오비디우스는,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출신이기 때문에 사모스 사람을 등장시켰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변하며 소멸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소. 영혼은 저기서 여기로, 여기서 저기로 방황하다가 아무 것이나 마음에 드는 사지를 차지하지요. 영혼

은 짐승에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몸에서 짐승으로 옮겨 다닐 뿐 결코 소멸하는 법이 없소. 그리고 마치 말랑말랑한 밀랍이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이전 상태로 남아 있지도 않고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밀랍이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여러 가지 형상 속으로 옮겨 다녀도 언제나 똑같다는 것이 내 가르침이오... 온 세상에 영속하는 것은 없소. 만물은 유전하고 모든 형상은 변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오(천병희, 2006: 704)."[11] 오비디우스의 사상에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변신'을 겪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사상이 배어 있다. 말하자면 오비디우스는 만물이 '변신'을 통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그의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오비디우스는 "하지만 나는, 나의 더 나은 부분은 영속하는 존재로서 저 높은 별들 위로 실려갈 것이고 내 이름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힘에 정복된 나라들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는 백성들의 입으로 읽힐 것이며 시인의 예언에 진실 같은 것이 있다면 내 명성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천병희, 2006:741)."[11]라고『변신 이야기』를 장엄하게 끝맺는다. 그는 자기 자신은 별 너머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자신의 명성을 소멸하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는 육체는 사라져도 자신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의 말처럼 2천년이 지났지만『변신 이야기』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3.3 그림 형제와『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

『KHM』이 출간된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형제는 나폴레옹 시대의 정치적인 소요 속에서 KHM이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민중의 책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나폴레옹 지배 체제 하에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독일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나폴레옹 지배 시대에 국민적,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요, 민담, 전설 등에 남아있는 독일 민족 고유의 이야기를 구전 전통이 사라져 가고 있는 때에 책으로 남겨 독일의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고 민중 문학을 교육적인 수단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민족 의식을 심어 주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KHM』의 편찬은 민족의 정신적 문화재를 지키려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독일의 엘리트들은 독일적인 것을 한때 그들이 영화로웠던 중세에서 찾았다. 그것은 독일인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그들은 KHM이 교

육서가 되기를 원했다. KHM 2판 서문에 “우리의 수집을 통하여 단지 시문학과 신화의 역사에 기여하려는 이유뿐만 아니라, 시문학이 (...)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로서도 쓰여 지기 바라는 의도에서이다.”라고 쓰고 있다 (Brüder Grimm, 2004, 16f).[18]

KHM은 1812년 초판 1권, 1815년 초판 2권이 출판된 후 1819년, 1837년, 1840년, 1843년, 1850년, 1857년까지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211편(이 가운데 151번은 두 편이다.)이 실린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그림 동화는 바로 1857년 최종판이다. 이처럼 KHM은 1812년부터 1857년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개정과 수정을 거듭한 결과물이다(이민수 2005:133 참고).[19]

KHM은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던 독일이라는 공간과 19세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4. 『변신 이야기』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의 변신 모티브

4.1 『변신 이야기』속의 변신

『변신 이야기』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에는 정신적인 변신보다 외형적인 변신이 잘 드러난다. 『변신 이야기』에서 ‘변신’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화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신화에서 ‘변신’은 중심 주제이다. 이때 인간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았을 때 ‘인간이 누구로, 무엇으로 변신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Zgoll 2004:36).[20] 이에 근거하여 변신 이야기 속의 ‘변신 모티브’를 다음의 3가지 질문으로 분류해 서사 패턴을 정리할 수 있다.[21]

[표 1] 변신 모티브의 서사 패턴

[Table 1] Narrative Pattern of Metamorphosis Motif

변신 이야기	누가, 누구에 의해서 변신하는가?	무엇으로 변신하는가?	변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프네와 아폴로	숫처녀 다프네는 그의 아버지 강의 신 페네이오스에 의해 변신한다.	월계수 나무	자신을 사랑하는 아폴로를 피하기 위해 강의 신인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변신한다.
쉬링크스	쉬링크스는 언니들에게 부탁해서 변신한다.	갈대	숲과 가축 때의 신인 판을 피해 자신을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 언니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다.
암소로 변한 이오	옴피테르에 의해 변신한다.	암송아지	옴피테르는 자신의 외도를 유노에게 숨기기 위해 이오를 변신시킨다.
디아나의 알몸을 본 악타이온	디아나 여신에 의해 변신한다.	사슴	악타이온이 여신의 벗은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징벌로 사슴으로 변한다.
카드무스와 하르모니아	초자연적 힘에(왕뱀) 의해 변신한다.	뱀	카드무스가 왕뱀을 죽인 죄 값으로 뱀이 되겠다고 말하자 뱀으로 변한다. 그의 아내 하르모니아도 뱀으로 변한다.
카이사르의 신격화	베누스가 카이사르의 영혼을 안고 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다 그만 영혼을 놓치고 말지만 영혼은 하늘로 솟아 오른다.	별	살해당한 카이사르를 천상의 별로 만들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한다.

[표 1]은 변신 대상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변신 이야기』 속의 변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7: Zgoll 2004:39).[21]

- 1) 다른 성으로의 변신: 다른 성으로의 변신은 고대 신화에서 선호되지 않으며 『변신 이야기』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변신의 형태이다. 티레시아스 → 여자 → 남자/ 이피스 → 남자
- 2) 육지 동물로의 변신: 이오 → 암 송아지/ 칼리스토 → 암 곰 → 별/ 악타이온 → 사슴
- 3) 물속 동물로의 변신: 루키아의 농부 → 개구리
- 4) 새로운 변신: 프로크네, 필로멜라, 테레우스 → 제비, 나이팅게일, 오디세/ 스켈라 → 새(‘키리스’라고 불린다.)
- 5) 나무로의 변신: 다프네 → 월계수 나무, 필레몬과 바우시스 → 참나무와 보리수
- 6) 돌로의 변신: 밧투스 → 돌, 니오베 → 돌
- 7) 상상의 존재로의 변신: 살마키스와 헤르마프로디투스 → 양성을 가진 존재로 변신미다스 → 당나귀를 가진 인간

8) 사물이 사람으로 변신: 피그말리온의 상아 소녀상 → 여성(갈라테이아)

이제 '변신'이 일어난 이유를 근거로 변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대부분 신의 축복이나 신의 구원, 혹은 신의 형벌이나 저주의 결과이다. 혹은 신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변신하기도 한다. 신화와 '변신 모티브'의 밀접한 연관성은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신화적 세계에서 변신의 능력은 신의 고유한 특권이자 신성성의 징표이기도 하다.

1) 도움을 요청하여 변신: '사람이 사물로 변신'하는 경우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주체나 객체의 간절한 소망으로 '변신'이 일어난다. 곤경에 처한 대상이 신에게 기도하여 변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 다프네를 들 수 있다. 다프네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폴론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강의 신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 월계수로 변하여 아폴론에게서 벗어난다. 갈대숲으로 변한 쉬링크스 등이 대표적이다(Erbse, 1985:347 참고).[22]

2) 잘못에 대한 처벌 혹은 신의 복수: 신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인간이 신의 저주나 형벌의 결과로 변신한다. 예를 들어 나르키소스와 에코는 오만함과 눈치 없음으로 인해 수선화와 메아리로 변한다. 니오베는 자식 자랑에 빠져 포에부스의 어머니 라토나를 모욕한 대가로 돌로 변신한다. 이에 반해 악타이온은 잘못도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은 억울한 경우이다. 유노의 질투와 시기로 유피테르의 바람의 대상들은 동물 등으로 변신한다. 암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를 예로 들 수 있다.(Erbse, 1985:347-348 참고).[22]

4) 신들의 변신, 즉 유혹자의 변신: 신들이 변신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다. 신들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변신한다.『변신 이야기』속의 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비도덕적이고, 일방적이다. 유피테르가 대표적이다. 그는 소아시아의 공주 에우로파가 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황소로 변신하여 접근한다.

신들의 변신의 이유는 그들의 분노나 저주 혹은 동정심으로 동물이나 사물로 변하는 인간의 경우와는 다르다. 신들은 필요에 따라 사람, 동물 혹은 사물로 변신하고 자신의 뜻을 이룬 후 다시 본 모습을 찾는 반면, 한번 모습을 탈바꿈한 인간은 인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Zgoll 2004:35).[21] 신화 시대에 '변신'은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신들의 절대 권능이다. 결국 '변신'은 신의 삶의 한 방식인 것이다.

5) 신의 축복과 보상의 결과: 바우키스와 필레몬을 예로 들 수 있다.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

몬은 허름하게 변장한 유피테르를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박대하지만, 그들만은 제우스를 도와준다. 감동한 유피테르는 이 노부부의 소원대로 자신의 신전을 지키는 나무가 되게 한다.

6) 안타깝게 죽음에 대한 애도: 신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변신을 능력을 발휘한다. 아폴론과 원반던지기 경기를 하다 원반에 맞아 죽은 스파르타의 미소년 휘아킨토스와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도니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꽃으로 변신한다.

4.2.『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민담 동화』속의 변신

오비디우스와 루이스 아풀레이우스(Luise Apuleius)이래 '인간-동물-변신 모티브'는 세계 문학에서 많이 차용되어 변주되고 있다(Saletta 2011:157 참고).[23] KHM에서는『변신 이야기』와는 달리 '인간 중심의 변신'이 주 대상이다. 140여 가지의 변신 중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등장하는 동물로는 오리, 까마귀, 비둘기, 개, 개구리, 물고기, 고양이, 사슴, 두꺼비, 말, 여우 등 다양하다(이상일 1994:103-105 참고).[8] 인간은 광물로도 변하는 데 꽃이나 교회, 막대기 등으로 변한다.『변신 이야기』와는 달리 "사람이 동물, 광물, 식물 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환원하는 순환체계에 따라 전개된다.(이상일 1994:101)".[24]

KHM에서는 마법사, 마녀 등 초월적 존재들은 자아 변신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스스로 변신할 수 없고 초월적 존재의 저주로 여러 형태로 변신한다. 그러나『변신 이야기』와는 달리 마녀 등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주체가 아니라,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변신 모티브'는 신화뿐만 아니라 동화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KHM 속의 '변신'은『변신 이야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쉽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막스 루티(Max Lüthi)의 동화의 원칙 중 "일차원성의 원칙(Eindimensionalität)"에서 KHM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변신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동화의 모든 세계는 일차원적이다. 두개의 세계, 즉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는 같은 차원 '일차원'에 있다. 동화에서 현실 세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 세계는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다. 동화의 주인공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일차원성"은 민담에서 피안과 현실이 하나의 차원에 있음을 의미한다(Lüthi, 1997:8-12 참고).[25] 독일의 문예학자이자 연극 비평가인 볼커 클로츠(Volker Klotz)가 열거한 민담의 특징들도 막스 루티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기적은 자명한 사실이고 인간과 동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한계가 없다(Klotz 1985:10 참

고).[26] 그러다보니 동화 속에서 인간이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하고 이런 변신들은 놀랄 일도 아닌 것이다.

KHM 에서 '변신 모티브'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Pevny 2014: 11-33 참고).[1]

1) 마녀의 저주로 인한 변신: KHM에서는 대부분 계모와 마녀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 의붓자식을 학대한다. 마법은 그들의 학대 수단이다. 마녀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변신시키거나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 사용한다.

KHM 11번「오누이(Brüderchen und Schwesterchen)」를 보면 계모가 샘물에 마법을 걸고 그 물을 마신 오빠는 사슴으로 변한다. KHM 49번「여섯 마리 백조(Die sechs Schwäne)」에서 6명의 아들은 계모의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한다. KHM 141번「어린 양과 물고기(Das Lämmchen und Fischen)」에서 오누이를 싫어한 계모가 마법을 부려 오빠는 물고기로 누이동생은 어린 양으로 변한다. KHM 123번「숲 속의 노파(Die Alte im Wald)」에서는 마녀의 마법에 걸려 나무로 변한 젊은이를 한 소녀가 구해준다. KHM 161번「흰눈이와 빨간 장미Schneeweisschen und Rosenrot」에서는 나쁜 난장이가 보물을 빼앗기 위해 왕자를 곰으로 변신시킨다.

2) 호기심에 대한 처벌로서 변신: KHM 43번「트루데 부인(Frau Trude)」에서 고집 세고 호기심 많은 딸이 부모님의 만류에도 호기심 때문에 트루데 부인을 찾아가 나무토막으로 변해 볼 수시 개가 된다.

3) 잘못에 대한 처벌로서의 변신: KHM 76번「패랭이 꽃(Die Nelke)」을 보면 갓난 왕자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나쁜 요리사가 왕비를 속여서 왕자를 빼돌린다. 그는 왕자가 성숙하자 왕자를 이용해 부자가 되나 후한이 무서워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는 왕자의 소원으로 나타난 예쁜 소녀를 시켜 왕자를 죽이려 하지만 소녀는 요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안 왕자는 분노하여 요리사를 푸들로 만들어 버린다.

4) 영혼의 변신: '영혼 변신담'의 기저에는 인간이 죽은 후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다른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인간의 영혼은 주로 동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KHM에서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죽음을 당한 주인공의 영혼이 변신하여 다른 형상으로 등장한다. KHM 47번「고간주나무(Van den Machandelboom)」를 보면 새엄마에게 억울하게 죽은 남자 아이의 영혼이 새로 변신한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동물의 모습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믿음은 오래 전부터 인도게르만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Brunner Ungricht 1998:151 참고).[3] KHM 21번

「신데렐라(Aschenputtel)」에서도 영혼의 새, 비둘기가 등장한다. 이 새는 신데렐라의 소원을 들어 준다. 왜냐하면 이 새가 바로 죽은 신데렐라 엄마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비둘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지 않는다. 신데렐라 어머니는 이미 오래 전에 죽어 어머니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5) 부모의 저주로 인한 변신: KHM 93번「까마귀 (Die Rabe)」에서 왕비는 때를 쓰는 딸에게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고 하자 딸은 까마귀로 변해 날아간다. KHM 25번「일곱 마리 까마귀(Die Sieben Raben)」에서 일곱 아들을 둔 한 남자가 그렇게 원하던 딸을 얻자 허약한 딸을 위해 예정보다 빨리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가 일곱 아들에게 세례에 쓸 물을 떠오라고 하자 아들들은 그만 실수로 단지를 우물에 빠뜨린다.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그들에게 모두 까마귀가 되어버리라고 저주하자 그들은 까마귀로 변신한다.

6) 원래 동물이었는데 사람으로 변신: KHM 144번「당나귀 왕자(Das Eselein)」, KHM 108번 「한스, 나의 고슴도치(Hans mein Igel)」를 예로 들 수 있다.「한스, 나의 고슴도치」에서 한 농부가 자식을 소망하며 고슴도치라도 상관없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농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다. 그런데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7) 도와주는 관점에서의 변신: KHM에서 주인공이 변신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마녀의 질투나 저주 때문이다. 즉 주인공을 해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변신이다. 이에 반해 몇몇 동화 속의 변신은 주인공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신이다(Brunner Ungricht 1998:226 참고).[3] 이런 변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인공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동물로 변신하여 완수한다. KHM 191번「군소(Meerhäschen)」에서 주인공은 여우의 도움으로 물에 사는 군소로 변신하여 공주가 낸 까다로운 시험에 통과하고 공주와 결혼한다. 이때 '변신'은 처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과제 해결의 능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KHM에서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인간-동물담'은 많지만 '동물-인간담'은 드물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변신 이야기』와 KHM의 '변신 모티브'의 유형은 다양하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살펴보자.

1)『변신 이야기』에서는 변신하는 대상의 주변 인물이나 주변 환경까지 마법에 걸리지 않지만 KHM에서는 '집단 마법'에 걸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KHM 123번「숲속의 노파(Die Alte im Wald)」를 보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하녀가 비둘기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비둘기는 소녀에게 숲속의 노파에게 있는 평범한 반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소녀는 비둘기의 청을 들어준다. 그러자 마녀의 마법에 걸려 나무가 되었던 왕자가 사람으로 돌아오고 왕자와 함께 나무로 변했던 시종과 말들도 마법에서 풀려난다. KHM 163번「유리관(Der gläserne Sarg)」을 보면 나쁜 마법사의 마법으로 유리 산에 갇힌 부유한 백작의 딸이 마법에서 풀려나자 사슴으로 변했던 오빠도 사람으로 돌아오고 연기로 변해 유리병에 갇혔던 하인과 백성들도 사람으로 돌아온다.

2)『변신 이야기』에서는 절대 권능을 가진 신이 주로 여러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반면 KHM에서는 주인공 인간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처럼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꾼다. 그들은 죽음을 피하거나 박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변신의 능력을 이용한다. KHM 113번「두 왕의 아이들(De beiden Königskinner)」을 보면 결혼을 반대하는 왕들을 피해 왕자와 공주는 세 번에 걸쳐 변신을 거듭한다. 왕자는 가시덤굴, 교회, 연못으로 공주는 장미, 목사, 물고기로 연속적으로 변신한다.

3)『변신 이야기』와는 달리 KHM에서는 변신한 대상이 일정 시간 동안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KHM 88번「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Das singende springende Löweneckerchen)」에서는 마법에 걸려 사자로 변한 왕자가 밤이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날이 밝으면 다시 사자가 된다. KHM 49번「여섯 마리 백조」에서는 계모의 마법으로 백조가 된 여섯 오빠는 저녁에 10분 동안 백조의 깃털을 벗고 사람이 된다.

4)『변신 이야기』와 달리 KHM에서 '변신 모티브'는 변신한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구원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끌어가기 위한 장치이다(Winfried Freund Schnellkurs Märchen 2005:152 참고).[27] 변신한 대상은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고 행복하게 산다.『변신 이야기』에서는 '변신이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 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왕자가 사자가 되었다라고 간단한 묘사로 끝이 난다. 그 대신 변신 이후 일어난 일들과 결말이 상세히 묘사된다. '변신'은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로 가기 위한 이야기의 도구이다.

5)『변신 이야기』에서 신은 변신 후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지만, 변신한 인간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 이와 달리 KHM의 변신의 대상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신 대상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치거나 벽에 집어던지거나 동물 껍질을 불태우는 행위 등을 통해 사람의 모습을 되찾는다. 또한 조력자들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변신에서 풀려나기도 한다. 악인이 불에 타 죽는 등의 대가를 치르면 마법에서 풀려나 사람

으로 환생하기도 한다(Pevny 2014: 16-18 참고).[1]

6) 『변신 이야기』 속의 변신은 '창조 신화'와 관련 있어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알려주고 있지만 KHM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7) KHM에서는 변신을 일으킨 초자연적인 존재 등은 죄 값을 받지만 『변신 이야기』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는 권능자체이다.

8) KHM의 '변신 이야기'는 교훈적인 반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교훈적이지도 않다.

9) 『변신 이야기』의 변신은 신의 세계가 중심이고 KHM의 변신은 인간 세계가 중심에 놓인다. 문체 면에서도 『변신 이야기』와 KHM은 차이가 난다. 오비디우스의 작품은 유려한 문체로 인물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표현이 풍부하나 KHM은 민담을 각색한 작품이다 보니 문학적인 표현이 풍부하지 않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그림 형제의 KHM의 '변신 모티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신 모티브' 연구는 현대 문학의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와 전설, 민담, 동화의 신체적, 외형적인 '변신 모티브'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변신(Verwandlung)』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존이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변신, 사회적 변신으로 확장되어 문학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신화 시대와 동화의 세계에서 몸을 바꾸는 외형적인 변신을 통해 인간은 다른 세계와 표면적인 소통을 이루었다면, 현대인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신화나 동화의 '변신 모티브'는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변신 모티브'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문학에서 끊임없이 차용되고 변형될 것이다. 오비디우스가 시인으로서 자신의 명성이 불멸할 것임을 예언한 것처럼 '변신 모티브'도 영원히 문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References

- [1] Tanja Pevny. (2014). *Verwandlungen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Universität Wien, Diplomarbeit.
- [2] Jae Seo Jung and Soo Yong Jung and Ki Jung Seo. (2008). *Mythological imagination and cultur*,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Department, Seoul.
- [3] Brunner Ungricht Gabriela. (1998). *Die Menschen-Tier-Verwandlung. Eine Motivgeschich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Märchens in der ers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Bern.
- [4] Mythos. Retrieved November 8, 2017, from <http://de.wikipedia.org/wiki/Mythos>.
- [5] Dudenredaktion. (2016). *Das Herkunftswörterbuch: Etymologie der deutschen Sprache*, Bibliographisches Institut, Berlin.
- [6] Young-ok Im. (2000). *(The) Modern Meaning of Metamorphosis Motif: The Linking Between Folktales & Modern novel*, Sogang University, Seoul.
- [7] Metamorphosis. Retrieved November 20,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Metamorphosis>,
- [8] Sangil Lee. (1978). *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Volksmärchen mit den Verwandlungsmotive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9] Metamorphosis. Retrieved November 20, 2017,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101&cid=41799&categoryId=41800>,
- [10] Jeoptongsae. Retrieved November 20, 2017,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9873, .
- [11] Ovid, *Metamorphosen*, (2006) Translated by Byung-hee, Chun, Soup, Seoul.
- [12] Von Albrecht, M., & Glücklich, H. J. (2002). *Interpretationen und Unterrichtsvorschläge zu Ovids' Metamorphosen"* (No. 7). Vandenhoeck & Ruprecht.
- [13] Kim, Keeyoung. (2013). The Meaning of the Poet Ovid's Metamorphosis in the Epilogue (15.871-9) of the Metamorphoses. *Foreign Literature Studies*, (51), 55-76.
- [14] Niklas Holzberg. (2016). *Ovids Metamorphosen*, C.H.Beck, München.
- [15] Choi Hae-Young. (2001). The Reason of the Exile of Ovid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Augustus.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172, 249-278.
- [16] Jaewon Ahn. (2011). Musa, Camena, Siren: Reading Ovid's Metamorphoses.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6), 115-136.

- [17] Harenberg, B., Budde, B., & Wetzel, C. (2003). *Harenberg Literaturlexikon. Autoren, Werke und Epochen. Gattungen und Begriffe von A bis Z*,(Dortmund: Harenberg Kommunikation, 1997).
- [18] Rölleke, H. (1984). *Kinder-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Ausgabe letzter Hand mit den Originalanmerkungen der Brüder Grimm*, 3.
- [19] Min Su Lee. (2005). *Die versteckte Wahrheit vom Grimms Märchen*, Yedam, Seoul.
- [20] Zgoll, C. (2004). *Phänomenologie der Metamorphose: Verwandlungen und Verwandtes in der augusteischen Dichtung (Vol. 28)*. Gunter Narr Verlag.
- [21] *Metamorphosen (Ovid)*. Retrieved November 22, 2017, from [https://de.wikipedia.org/wiki/Metamorphosen_\(Ovid\)](https://de.wikipedia.org/wiki/Metamorphosen_(Ovid))
- [22] Erbse, H. (2003). *Beobachtungen über die Funktion der Metamorphose bei Ovid*. *Hermes*, 323-349.
- [23] Erster Saletta. (2011) *Das Mensch-Tier-Verwandlungsmotiv in der italienischen Märchentradition der Gegenwart*. in *Tierverwandlungen*, Edited Tuczay, Christa Agnes and Blécourt, de Willem, Narr Francke Attempt, Tübingen, 157-171.
- [24] Sang-il Lee. (1994). *Verwandlung*, Melal, Seoul.
- [25] Max Lüthi. (1992).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A. Francke Verlag, Tübingen und Basel.
- [26] Volker Klotz. (1985).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 [27] Winfried Freund. (2005). *Schnellkurs Märchen*, Dumont.

